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지자체 최초 도시문제 해결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ZOOM IN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23개 농식품 유망 스타트업 성장 발판된다
- 가게에는 매출, 청년예술가에게는 경험...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HOT ISSUE

- 장인이 만든 수제화와 디자이너 수제 주얼리로 크리스마스 선물하세요
- 서울이 당신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Thanks Giving 크리스마스 마켓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고태경 kotaekyung@seoul.go.kr

FOCUS 01

서울시, 지자체 최초 도시문제 해결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교통, 환경, 도시개발 등 3대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가 지난 10월 개관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서울대(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원장)와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를 공동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12월 7일(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빅데이터 분야 거버넌스 구축,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설치

지자체 주도로 서울대와 빅데이터 분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며, 시는 이곳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연구 사업의 핵심 연구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시민·대학생·취업준비생 등 대상 빅데이터에 대해 기초, 전문가 교육 진행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서울디지털재단과의 공동협력 ▲빅데이터 분야 교육·연구 자문 지원 ▲연구소 운영을 위한 장비, 콘텐츠 등의 사항 ▲기타 양 기관의 상호 협력분야 지원 등이다. 특히,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는 환경·도시개발·교통 등 3대 분야 4개 핵심을 정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는데, ①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체계 구축 ②서울시 공기오염원·소음 분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③도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분석 대안제시 연구 ④교통 패턴 분석을 통한 교통환경 시각화 기술 개발이 그것이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가 어우러지는 24시간 개방공간인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당초 취지에 맞게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된다.

시는 "이번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과의 교육·연구 공동 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관·학 기술 협력의 통로가 마련됐다"며 "지속적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 인재양성과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 23개 농식품 유망 스타트업 성장 발판된다

농식품 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먹거리창업센터’가 12월 7일(수) 문을 열었다.

**23개 농식품산업 유망
스타트업에 사무공간
무상제공, 멘토링 등
창업지원**

**최장 2년까지 입주가능,
시제품 제작에서
화보 촬영까지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가락시장 현대화시설인 가락몰 1관·2관 3층(연면적 1,547㎡)에 조성되며, 농식품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과 시제품제작을 겸한 소셜다이닝 공간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서울먹거리창업센터(Seoul Food Startup Center)’를 통해 건강한 식품 요리법 개발, 신선식품 가공방법,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한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개 입주기업(농식품분야 20개, 디자인 등 이종분야 3개)을 최종선발해 창업지원에 나선다. 특히, 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개방형, 개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창업 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 각종 창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며, 6개월마다 성장평가 관리를 거쳐 최장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개별 사무실 및 사무집기 제공은 기본이다. 먹거리를 연구하고 아이디어 상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센터 내에 재료 구입, 시제품 제작, 홍보용 화보 촬영까지 가능한 종합공간인 오픈키친과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공간도 제공된다. 시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가 도시형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촉진하는 중심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내 최대 물류단지인 가락시장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서울시가 농식품산업에 혁신과 성장 자양분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ZOOM IN | 02

가게에는 매출, 청년예술가에겐 경험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청년예술가
19명+31개 소상공인
점포와 함께한
8개월간 예술마케팅
콜라보**

**시,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2기 참여 예술가
지원 강화**

동네 수퍼, 세탁소, 문구점이나 빵집 등 작은 가게마다 '전담 예술가'가 있다면 어떨까.

서울시는 일 경험과 직업 역량이 필요한 19명의 청년예술가와 점포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해보고 싶지만 여유와 방법이 없었던 31개 소상공인 점포가 8개월간(4~12월) 함께 활동한 내용을 담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전시회'가 12월 15일(목)부터 19일(월)까지 5일간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의 하나로 진행된 1기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회화, 판화, 전시디자인 등 시각예술 분야를 전공한 청년예술가와 소규모 매장형 점포를 1대 1로 매칭, 점포주와의 정기적 미팅과 점포관찰을 통해 점포 내·외부 아트월부터 명함, 종이컵·머그컵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점포 맞춤형 디자인을 제공했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인 (주)에이컴퍼니가 수행한 이 사업에서 청년예술가들은 ▲고객(점포)과의 소통방법을 배우고 ▲예술가의 작업을 상업적 공간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얻었으며,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2017년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진행하게 되며, 더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예술가들도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소상공인 점포와 청년예술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업하여 점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며 “소상공인 점포가 경영개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인이 만든 수제화와 디자이너 수제 주얼리로 크리스마스 선물하세요

서울시는 침체된 도시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수제화와 주얼리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2016 수제화·주얼리 크리스마스 나눔 마켓’을 12월 19일(월)~24일(토), 6일간(11시~20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에서 개최한다.

**12개 수제화,
8개 주얼리 업체 참여,
3D 프린터 활용해
발 편한 맞춤형
수제화 주문제작**

‘2016 수제화·주얼리 크리스마스 나눔 마켓’에서는 디자인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판로를 찾기 어려웠던 수제화(12개)·주얼리(8개), 총 20개 업체가 참여해 겨울시즌과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수제화·주얼리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나눔행사 취지에 맞게 참가 업체들도 판매 수익 일부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먼저,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수제화 장인의 맞춤구두부터 트렌디한 슈즈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한 자리에 선보이게 되며, 3D 프린터를 활용해 내 발에 꼭 맞고,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맞춤 수제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랑하는 연인, 고마운 친구에게 마음을 표현하기에 좋은 선물 콘셉트의 주얼리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주얼리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출전문 브랜드 및 디자이너 주얼리 제품을 크리스마스 나눔 마켓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12월 17일(토)~12월 24일(토),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성수 수제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성수 수제화 우수 디자인을 전시하는 동시에 성수 수제화의 역사, 슈슈마켓 등 성수 수제화 홍보 동영상도 함께 전시한다. 특히, ‘서울수제화아카데미’ 디자이너·MD 과정 1기 수료생들이 다양하고 전문화된 커리큘럼으로 편성된 1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졸업작품전을 개최한다.

**시, 성수 수제화와
주얼리 우수성 알리고,
업계의 경쟁력
확보 위한 판로기회
지속 제공**

시는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판로를, 소외된 이웃에게는 온정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기획하게 되었다”며, “대내·외로 성수 수제화와 종로 주얼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판매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석다조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OT ISSUE | 02

서울이 당신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Thanks Giving 크리스마스 마켓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 한 해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동시에 삶의 의미를 공유하자는 의미가 담긴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이 21일(수)부터 31일(토)까지 11일간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틀광장(여의나루역 2번출구)에서 개최된다.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 36대와
세상에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등
144팀 참여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의 콘셉트는 'Thanks Giving 크리스마스마켓'이다.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겨울밤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참여 상인들이 뭉쳤다. 크리스마스의 흥겨움을 더해 줄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 36대와 핸드메이드 작가 등 144개팀이 모였다.

이번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은 겨울철 수요를 찾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판로개척의 기회를, 소비자와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신규 창업자들에게는 소비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크리스마스 마켓의 나눔의미를 더한다. 이는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만큼 최대한 많은 시민이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대형 구조물을 설치해 실내공간에서 11일간 진행된다.

크리스마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캐롤이다. 7인조로 구성된 밴드가 연주하는 캐롤과 행진곡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하고, 핸드메이드 작가가 강사로 참여해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미니부케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시, 소상공인 위한
크리스마스 마켓,
지속 확대해
시즌관광명소로 조성

시는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은 겨울철 판매처를 찾기 힘든 푸드트럭과 핸드메이드 작가를 위한 시간이자,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팀이 서울시민을 위해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울시의 시즌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